

것이다. 하지만, 그 교사는 기존의 영어 교수법을 자신의 영어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수법들에서는 교사 자신의 개성이나 영어 구사 능력과 같은 교사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수준과 나이 등과 같은 교실 변수들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각 교사는 자신의 품성이나 영어 구사 능력, 영어 교수 경력에 맞추는 것은 물론 영어 학습자들의 나이와 학습자 수준, 학습자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영어 교수 원리들을 정립하는 일에 전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각 교사의 교육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교사 자신의 것으로 흡수된다. 즉 영어교육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 교사는 이러한 영어 교수의 원리들을 내재화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KATE, Advance Towards the EFL Hub!

국내외 영어교육 환경 변화와 KATE의 역할

글을 시작하며

필자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문에 참여해왔다. 이 기간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글로벌화 정책과 맞물려 영어 사용 및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 특히 KATE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1965년 KATE가 창립할 당시의 척박했던 영어교육 연구 환경과 비교할 때 지난 50년간 KATE가 이룩한 영어교육 관련 연구 및 학문의 발전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눈부신 성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영어 사용 및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KATE는 이전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계가 처한 국내외 환

* KATE 21대 편집출판 부회장 역임



박준언*
(숭실대학교)

경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고, KATE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KATE가 향후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영어 사용 및 영어교육 환경 변화

글로벌화 확산과 영어위상의 공고화

21세기의 세계적 화두는 단연코 글로벌화(globalization)이다. 글로벌화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대립적 입장이 존재하나, 맥도널드화(McDonaldization)로 지칭되는 서구 중심의 가치 동질화가 지하드(Jihad)로 지칭되는 반 서구 중심의 가치 이질화를 누르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개념이라는 데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Barber, 2010). ‘McWorld’로 대표되는 초국적 글로벌 기업들 및 헐리우드식 미국 대중문화들은 생산과 유통과정의 표준화 뿐 아니라 소통언어의 표준화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어가 기존의 주요 글로벌 언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을 평정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통용어(lingua franca)로 자리매김하였다(Crystal, 2003).

물론 글로벌화에 대칭되는 로컬화(localization)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로컬화가 글로벌화 흐름을 대체할 수는 없고, 대신 글로벌화와 로컬화가 결합한 글로컬화(glocalization)가 글로벌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글로벌화와 글로컬화를 동일시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중심의 보편적 글로벌화이든, 개별 국가들의 특수성이 가미된 글로컬화이든, 이러한 흐름을 매개하고 확산하는데 사용되는 핵심적 언어는 바로 영어이며, 21세기에 다양하게 전개될 다극화 과정에서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새로운 글로벌 주류 언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영어의 위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Graddol, 2006).

Phillipson(1998)은 글로벌 영어 확산 과정을 예전 대영제국주의 시절의 유산으로서, 오늘날에는 미국과 영국이 신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미국, 영국이 자신들의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3세계로 분류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을 영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언어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어 확산의 신제국주의 시각이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영어 확산이 단순히 제3세계 국가들 뿐 아니라, 제1세계 유럽 국가들과 미소 냉전체제 붕괴 후 독립한 예전 제2세계 국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Phillipson 자신도 인정하듯이 지난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유럽연합 내에서 영어와 함께 주요 언어로 되어온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오늘날 그 위상이 미미할 정도로 축소되었으며(Phillipson, 2003; Pietilainen, 2011),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영어가 자국어를 밀어내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 과정에서 영어의 위상은 더욱 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영어의 독주 현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언어·내용통합 외국어교육 패러다임 확산

21세기 들어서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 세계적 외국어교육 흐름의 하나가 외국어를 단순히 언어 교과목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과목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다(Brinton, Snow, & Wesche, 2011; Sherris, 2008). 언어와 교과과목 내용을 결합하는 외국어교육은 지난 1960-1970년대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몰입식(immersion) 외국어교육 프로그램들(Lambert & Tucker, 1972; Genesee, 1987)과 198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내용·언어 통합학습(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LIL)(Marsh, 2002)의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양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외국어교육에 언어와 내용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은 기존의 전통적 외국어 교수·학습 방식이 외국어학습 증진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성찰에 따른 것으로서, 학습자의 언어 노출 총량을 늘리고 인지수준에 부합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학습의 효용성과 효율성을 신장하고 또한 학습동기 유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시도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CLIL은 언어와 내용의 두 가지 중 어디에 보다 강조를 할 것인가는 교육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즉, 언어중심학습, 내용중심학습, 언어내용 병존학습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불과 한두 사립초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운영되던 몰입식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이 2000년대 들어와 전국적으로 일부 초중등학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혁신적 영어 학습 방식의 한국 교육현장 접목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박준언·박선호, 2006; Kim, Y., 2010). 몰입식 외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목들을 학생들의 모어가 아닌 외국어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교육방식이다. 현행 교육법상으로도 영어를 독립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것 이외에 타 교과목들을 영어로 수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초·중등학교 현장에서의 몰입식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일정 부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일고 있다. CLIL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초·중등영어교육 현장에서의 CLIL 운영 가능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영어강의 확산

CLIL과 밀접하게 연계된 개념으로서 전공학문 영어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세계적 신자유주의 경제 흐름의 영향을 받아 교육, 특히 고등교육 분야도 기존의 상아탑식 고고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전 글로벌 젊은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학문적 수월성 이외에 강의매체언어를 들 수 있다. 글로벌 100대 고등교육기관의 70% 이상이 영어를 강의매체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이들 초일류 고등교육기관들의 상당수가 미국과 영국에 분포된 이유도 있겠으나, 비영어권 사용 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들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어를 강의매체언어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영어강의 보편화 현상은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대학들에서 영어는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의 주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Cabau, 2011; Coleman, 2006; Klaassen & De Graaff, 2001; Lauridsen, 2009).

초기에는 북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EMI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Cabau, 2011; Coleman, 2006; Lauridsen, 2009; Vinke, Snippe, & Jochems, 1998), 오늘날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글로벌 언어 사용 국가들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의 EMI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며(Erling & Higendorf, 2006), 이러한 현상은 유럽 국가들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Chang, 2010; Hu, 2009; Manh, 2012; Sert, 2008; Tsuneyoshi, 2005; Yumei, 2010). 이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이 단순히 학문적 수월성 제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어 사용의 용이성 및 보



편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한 학문 영역에서의 영어의 전방위 침투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을 통해 자국어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enzo & Jessner, 2000; Cogo & Jenkins, 2010; Kelly, 2014). 일례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역내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Erasmus Project의 경우, 대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일정 기간을 타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언어적 어려움을 이유로 비영어권 국가들을 기피하는 탓에 이 제도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서 고등교육기관들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해오고 있다. 글로벌 경쟁 잠재력을 구비한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를 실행하여 한국 대학들의 학문적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마다 전공학문 강의를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강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강소연·박혜선, 2004; Byun, K., Chu, H., Kim, M., Park, I., Kim, S., & Jung, J., 2011; Cho, D., 2012; Cho, J., 2012; Kang, H., 2012; Oh, 2011). 이 과정에서 EMI의 효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으나, 분명한 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의 EMI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EMI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영어 강의 능력 향상, 학생들의 영어 강의 수강능력 향상, EMI 모형 개발 및 보급, EMI 지원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영어 상용화 지역 확대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글로벌화 추진의 여파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붐이 일어나며 해마다 영어권 국가에 조기 유학하는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갖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영어권 국가에 대한 과도한 유학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국내에서 소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어교육도시를 건설해서 영어로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를 설립하여 국내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였다(이외갑 외, 2009).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일부 학교가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학교들은 특별법에 의해 한국어, 한국사 등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들을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 즉, 영어전용 학교들인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 특별지역들 내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가 의사소통 언어로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지역의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보다 강력한 영어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인천 송도 국제자유지역 내에 설립된 송도글로벌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초일류 글로벌 대학들과 손잡고 첨단 분야의 학문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모든 강의 및 학생활동은 영어로만 진행되고 있다. 교육특구들 내의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구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는 점차 일반 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극소수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몰입식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은 2000년대 이후 사립 초·중·고등학교들은 물론 일부 공립학교들에게 까지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이러한 몰입식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 해당 학교들과 갈등을 야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분적 이중언어화 진행과 영어공용화 논쟁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미미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학교 영어 수업을 통해 영어에 부분적이거나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어 사용 기회의 원천적 제한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영어 사용이 서서히 보편화되는 영역들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 영역이 상업광고 분야로서, 필자는 상업광고 영역에서 이미 영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박준언, 2010), 이 영역에서의 영어 사용은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은 K-pop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K-pop 노랫말들의 40% 이상이 영어 또는 영어와 한국어의 혼용일 정도로 영어의 침투는 대단하다(박준언, 2014).

상업광고와 대중음악이 일반 대중의 언어적 수용성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임을 고려할 때 이들 영역에서 영어가 단순한 외국어로서의 위상을 넘어 한국어와 경쟁하는 언어적 매체로 부상한 점은 적어도 이들 영역에서는 부분적 한국어·영어의 이중언어사용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중언어사용 영역의 확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의 영어교육 정책이 이러한 언어지형의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십수년 전 우리 사회에 영어공용화론이 등장하여 한동안 이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영어공용화 주창자들은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글로벌 통용어로서의 위상을 굳힌 영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모종린, 2008). 일부 주창자는 아예 아이의

출생 시부터 한국어와 영어 중 선택권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극단적 영어공용화론까지 제시하였다(북거일, 1998). 영어공용화 반대론자들은 우리 국민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 파괴로 인한 언어적, 문화적 식민지화, 영어공용화 실현의 현실적 불가능 등을 내세우며 영어공용화론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한학성, 2000). 이러한 찬반 논의는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영어공용화론을 둘러싼 대립적 주장들에서 보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어의 위상에 대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불행이도 이러한 영어교육 관련 거대담론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 학계를 대표하는 KATE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다. 영어 관련 사회적 담론들은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론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주도적으로 담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타 영역과의 적극적 교류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교육격차 확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구축되면서 공공재 성격을 유지해야 할 교육 분야도 무한경쟁의 장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서 유아들부터 치열한 경쟁에 짓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서 필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능여부가 자녀들의 교육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유발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계층 간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

가 바로 영어교육이다. 이른바 영어 격차(English divide)라고 불리는 영어교육 격차 현상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 비싼 영어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양질의 영어 사교육을 받은 결과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에 뒤처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계층 간의 영어 사용 능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수한 영어 사용 능력에 부여되는 사회경제적 부가가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개인의 영어 사용 능력 여부에 따라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영역에의 진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영어 사용 능력이 사회적 선호 영역의 구성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가 권력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 격차에 의한 영어 능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공교육 효율성 제고노력을 경주하여 영어 격차를 메우려고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노력으로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다각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KATE에게도 커다란 도전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영어소유권 개념의 확산과 공통영어 창출 움직임

오늘날 영어는 다양한 변이형(varieties)들이 존재하고 있다. Kachru(1986)는 이러한 변이형들을 핵심집단(inner circle), 외면집단(outer circle), 확장집단(expanding circle)으로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여 영어가 더 이상 영미인의 언어에 머물지 않고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영어 사용자들을 핵심적 영어 사용자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영어 변이형들 간의 위계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즉, 영국영어, 미국영어 등 핵심집단의 영어가 그 이외의 영어들의 표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Canagarajah(1999)는 이러한 위계상 부여를 비판하며 모든 영어 변이

형들 간의 동등성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다소 지나친 면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영어 사용자 분포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비영어권 영어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종래의 핵심집단 영어 위주의 의사소통은 크게 감소하고 비 핵심집단 간의 영어 의사소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각각의 비영어권 영어 변이형들도 독자적 위상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영어 변이형을 사용하는 영어 사용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영어 변이형들의 핵심 공통분모(English as a Lingua Franca Common Core)들을 추출해서 모든 영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어 변이형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Cogo & Jenkins, 2010; Jenkins, 2000, 2003). ELF 공통핵심요소의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코퍼스언어학의 획기적 발전으로 British National Corpus(BNC),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 등 대규모 영국, 미국 영어 코퍼스 뿐 아니라, 다양한 영어 변이형들의 코퍼스가 구축되고 있어서(De Klerk, 2006), 이러한 변이형들의 자료 구축을 기반으로 변이형들 간의 핵심적 공통분모들을 찾아내는 일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자료 구축작업이 필요하다. 소위 콩글리쉬라고 불리는 한국식 영어(Koreanized English)는 오랜 시일에 걸쳐 토착화되고 규범화된 영어 변이형들처럼 독립적 변이형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60여 년 간 사용되어오면서 나름대로 한국식 영어 특유의 영어 자질들을 형성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영어 사용 환경이 비슷한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어들도 자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영어 변이형들이 출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이형들 간의 코퍼스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공통 핵심요소들을



추출하여 동아시아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LF East Asia’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KATE의 현 상황 분석

위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영어 사용 및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변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이들 요인들은 상호 간에 직간접으로 맞물려있다.

So, where do we go from here?

KATE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영어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전개될 국내외적 영어 사용 및 교육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KATE의 현 상황에 대한 SWOT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SWOT 분석은 조직 운영의 기본 요소로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을 지칭한다. KATE의 SWOT 요인들은 무엇인가?

강점

KATE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 연륜과 권위를 지닌 영어교육 전문 학회이다.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연구 역량은 TESOL, IATEFL 등 세계적 권위를 지닌 저명 해외 영어교육 학회들과 견주어도 크게 뒤질 것이 없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영어교육 분야가 독자성을 지닌 전문 학문연구 영역으로 정착되면서 국내외에서 우수한 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전문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영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들로 연구 영역의 지평을 확장한 결과 KATE 구성원들의 영어교육 연구 역량은 세계 최고수준의 수월성을 확보하였다. KATE가 국내외 영어교육 환경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special interest groups을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도 KATE의 강화된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특히 EFL 환경에서 쌓아온 연구 성과들은 TESOL이나 IATEFL 등 미국, 영국 주도의 영어교육 학회의 연구 결과물들과 차별화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어교육 환경을 지닌 국가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어교육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할 여지가 아주 크다고 하겠다.

약점

KATE는 이처럼 영어교육 연구 역량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수월성을 확보했지만, 연구 성과들이 영어교육 현장에 접목되는 면에서는 다소 미약한 점이 있다. 영어교육이 실천적 학문의 성격이 강한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연구 역량 확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연구 성과가 영어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활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어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 학자 및 연구자들과, 영어교육 현장을 담당하는 교사, 교육 담당자들 상호간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행히도, KATE는 그동안 이점에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KATE의 구성원 대부분이 전문학자 및 연구자들이고,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KATE의 취약점이라고 하겠다.

이뿐 아니라, 학교교육 영역을 넘어선 타 영역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사회의 제반 영어교육 문제들이 교육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사회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대부분 영어교육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KATE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KATE 구성원들 간의 소통에만 머물지 말고, 영어교육과 직간접적 관련

성이 있는 타 집단들과의 적극적 소통 및 교류가 요구된다.

기회

앞에서 기술했듯이,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영어교육을 둘러싼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은 당연히 KATE의 보다 적극적 관여를 요구한다. 국내적으로, 기존에 KATE가 주된 역량을 집중해 왔던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뿐 아니라, 언어·내용 통합교육, 영어상용화지역 확대 가능성, 고등교육기관의 영어 사용 확산, 한국식 영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영어교육 격차 해소 등 학교교육 영역을 뛰어넘는 보다 거시적 영역의 사항들도 KATE의 적극적 관여 없이는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KATE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KATE의 향후 발전에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영어교육학계는 그동안 축적해온 탁월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영어교육계의 변방 지위에서 벗어나 세계 영어교육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영어교육 환경이 유사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영어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머지않아 남북한 통일시대가 실현될 때 통일한국의 영어교육을 주도해야 할 책무도 떠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KATE의 지평이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적어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될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권의 영어교육정책 개발, 교육과정 개발, 평가도구 개발, 교수법 개발, 교사 연수 등 KATE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영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협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영어 사용 및 영어교육 관련 제반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사회 영역과 맞물려 있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으로 인해 여러 집단들이 영어 사용 및 담론 형성 및 전개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어교육 비전문가 집단들이 영어교육 관련 담론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KATE로 대표되는 영어교육계가 소외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로, 영어공용화 논쟁, 국회의원들의 영어교육특별법 입법제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제도 도입 무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전문가 집단들의 영어교육 관련 담론 선점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바, KATE가 제반 영어관련 이슈에서 중심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연구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대외적 정치력을 키우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교육적 이해가 결여된 각종 비전문가 집단들의 파워게임의 장이 될 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영어 학습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KATE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대한 제언

본고에서 기술한 국내외적 영어교육 환경의 변화들과, 필자 나름의 SWOT 분석을 바탕으로 KATE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대해 몇 가지 거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 사용에 대한 총체적 기초 자료 구축

우리나라 영어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증적 자료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영어관련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교육당국이나 언론 매체들이 제시하는 영어관련 통계자료들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해결 방안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 기관들마다 객관성이 부족한 부실한 통계자료들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도출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어 사용 관련 통계 자료 구축의 미비는 국가별 영어 사용자 비율 통계 자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가 매년 제시하는 세계 각국의 영어 사용자 비율 자료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영어 사용자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한국인들의 영어 사용 비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Wikipedia, 2013). 영어 사용과 관련한 기초 통계 자료의 미비로 인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늦으나마 이제부터라도 KATE가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영어 사용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어 사용 관련 전수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수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조사 항목에 영어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영어 사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조사 항목에 영어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KATE를 중심으로 영어 사용이 활발한 영역 및 잠재적 영어 사용 영역들부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기초 자료들은 작게는 향후 학교 영어교육 정책, 크게는 일반 영어교육 정책 개발 과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어공용화 논쟁, 한국 사회의 부분적 이중언어화 진행 등, 폭발력 있는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영어교육 정책의 조정 및 변화 과정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식 영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 사회 전반의 영어 사용 현황에 대한 전수적 기초 자료 구축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국식 영어 자료 구축도 KATE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요즘 코퍼스언어학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식 영어 사용 용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학생들의 영어 사용 용례들의 자료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사회 영역에서의 영어 사용 용례들에 대한 자료 구축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50~60년간 우리나라에서 학교 영어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영어 사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서서히 한국식 영어 특유의 자질들이 축적되고 있다. 물론 수 백 년 동안 토착화 과정을 거쳐서 독립적 변이형의 위상을 확보한 영어 변이형들과 비교하면 한국식 영어는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음운, 어휘형태, 통사구조, 담화, 등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타 영어 변이형들과 차별화되는 한국식 영어 자질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바, 광범위한 한국식 영어 사용 용례 자료 구축을 통해 한국식 영어의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 구축 작업은 향후,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영어 사용 환경이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어 사용자들의 ELF 핵심 요소들(ELF East Asia Common Core)을 추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

시아 지역이 국제 정치, 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 역내 국민들 간의 영어 의사소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ELF East Asia Common Core 설정을 위한 한국식 영어 사용 용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한국 영어교육계의 중요한 책무가 될 것이며, KATE는 이러한 데이터 구축작업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식 영어 사용 용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이 이루어지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한국식 영어 변이형이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 과정에 부분적이거나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타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 관련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적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어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과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KATE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어교육 관련 학회들이 주관한 학술대회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 영어교육 관련 주제들로 한정됨으로써, 스스로 영어교육을 교육적 차원으로 국한시키는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자세로는 향후 전개될 다양한 영어교육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전개 과정에서 KATE가 주도권을 쥐고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타 집단의 영향력에 휘둘리며 이들 집단에 들러리 서는 주변 집단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KATE 학술회의 주제의 폭을 넓혀 영어 사용 및 영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타 집단의 전문가들이 학술회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하여, KATE 학술회의가 더 이상 영어교육 전문가들만의 장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기관들, 국회를 비롯한 정치 집단,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집단,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영어교육관련 정책형성 및 실행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지속적 연계성을 유지하여 KATE가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일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동아시아 EFL 연구허브 및 영어교육 수출산업화 선도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영어교육학자, 교사 등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영어공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온 결과, EFL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박준언, 2013, Park, J, 2012). 이 과정에서 KATE가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왔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넘어 우리와 유사한 EFL 환경의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축적한 EFL 영어공교육 시스템 개선 노하우들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어교육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KATE의 지평을 중국, 일본, 대만을 아우르는 동아시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Asia TEFL이 아시아의 다양한 영어교육관련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오랜 기간 세계 영어교육을 주도해온 미국, 영국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시아 역내 환경이 영어원어민 사용국가, ESL 국가, EFL 국가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화되어 있어서 (Nunan, 2003), 역량을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KATE가 연구 교류의 폭을 우

리와 유사한 EFL 환경의 동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집중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EFL 교육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향후 KATE가 동아시아 영어교육 전문가들과 공동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연구인력 교류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청된다. 이렇게 KATE 주도의 동아시아 영어교육 연구생태계가 형성되면 KATE가 국내 영어교육학회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영어교육계에서도 뚜렷한 독자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동아시아 영어교육 연구생태계 형성을 통해 그동안 KATE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어교육계가 축적해온 EFL 영어교육관련 노하우들을 역내 국가들에서 전파할 수 있으며, 이를 연결고리로 삼아 다양한 영어교육 수출산업 차원의 부가가치들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으로 인한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외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의 이론 및 실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짧은 시일 내에 나름대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50년의 연륜을 지닌 KATE와 비교할 때 연구역량과 실무역량 모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외국어교육 차원에서 KATE가 중심이 되어 축적해온 다양한 영어교육관련 연구결과들과 경험들이 한국어교육에 전이되면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및 실무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일부 영어교육학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들에 참여해서 외국어교육 연

구결과를 공유하거나 전수하고 있으나, 이제는 KATE차원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및 실무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KATE와 한국어교육학회들 간의 공생관계가 형성되면, 한국어교육계는 영어교육계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야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맺으며

필자는 본고에서 영어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의 환경요인들을 검토하고, KATE의 현 상황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KATE의 향후 역할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영어교육관련 이슈들이 폭이 넓고 깊은 점에서 모든 사항들을 짧은 지면에서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본고에서는 영어교육 방법론, 교재개발, 교사 연수, 영어평가도구 개발, 영어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KAT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학계가 지난 50년간 연구 역량을 집중해온 학교영어교육 차원의 미시적 내용들은 배제하였다. 이미 이 분야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ATE가 그동안 비교적 관심을 덜 보인 거시적 차원의 영어교육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KATE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본고에서 기술한 내용들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KATE의 향후 역할에 대해 보다 좋은 실질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쟁쟁한 KATE 학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예전에 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제넘게 글을 쓴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한다.

글을 마치며, KATE 창립 50주년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가슴 깊이 축하한다. 5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50년 후의 오늘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당시 영



어교육 연구의 불모지에 한 톨의 작은 밑알을 심었듯이, KATE는 또 다른 50년 후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나라 영어교육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말 한국어이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세계 제일의 글로벌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KATE 회원들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다.

.....
참/고/문/헌

강소연·박혜선. (2004). 공학 분야에서의 영어 강의(English Medium Instruction)에 대한 기초 연구. *공학교육연구*, 7(1), 87-96.

모종린. (2008). *영어공용화의 의미와 영어상용화 실천 프로그램*. 장소: 자유기업원.

박준언. (2008). *우리나라 영어공교육, 희망은 있다*. 장소: 한국문화사.

박준언. (2010). 우리나라 광고문들의 이중언어사용 분석. *이중언어학*, 43, 131-162.

박준언. (2013). *영어공교육 시스템 개선*. 장소: 송실대학교 출판부.

박준언. (2014). K-pop 노랫말 코드전환의 기저언어 설정. *이중언어학*, 54, 157-184.

박준언·박선호. (200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초등영어몰입교육 시범실시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복거일. (1998). *국제화 시대의 민족어*. 장소: 문학과지성사.

이의갑·이병천·진경애·김용명·오세희·박준언·김종훈·김진석. (2009). *제주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학성. (2000). *영어공용화, 과연 가능한가*. 장소: 책세상.

Barber, B. R. (2010). Jihad vs McWorld. In G. Ritzer & Z. Atalay (Eds.), *Readings in globalization: Key concepts and major debates* (pp. 290-297). West Sussex, U.K.: Wiley-Blackwell.

Brinton, D. M., Snow, M. A., & Wesche, M. (2011).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yun, K., Chu, H., Kim, M., Park, I., Kim, S., & Jung, J. (2011). English-medium teaching in Korean higher education: Policy debates and reality. *High Educ*, 62, 432-449.

Cabau, B. (2011). Language policy in Swedish higher education: A contextualized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Language Policy*, 3(1), 37-60.

Canagarajah, S. (1999). *Resisting linguistic imperialism in English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nagarajah, S. (2005). Dilemmas in planning English/vernacular relations in post-colonial communitie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9(3), 418-447.

Genzo, J., & Jessner, U. (Eds.). (2000). *English in Europe: The acquisition of a third languag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Chang, Y. (2010). English-medium instruction for subject courses in tertiary education: Reactions from Taiwanese undergraduate students. *Taiwan International ESP Journal*, 2(1), 55-84.

Cho, D. (2012). English-medium instruction in the university context of Korea: Tradeoff between teaching outcomes and media-initiated university ranking. *The Journal of Asia TEFL*, 9(4), 135-163.

Cho, J. (2012). Campus in English or campus in shock? *English Today*, 28(2), 18-24.

Cogo, A., & Jenkins, J. (2010).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Language Policy*, 2(2), 271-294.

Coleman, J. A. (2006). English-medium teaching in European higher education. *Language Teaching*, 39, 1-14.

Crystal, 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 Klerk, V. (2006). *Corpus linguistics and world Englishes: An analysis of Xhosa English*. London: Continuum.

Erling, E. J., & Higendorf, S. K. (2006). Language policies in the context of German higher education. *Language Policy*, 5, 267-292.

Genesee, F. (1987). *Learning through two languages: Studies of immersion and bilingual education*. Rowley, MA: Newbury House.

Graddol, D. (2006). *English next*. British Council.

Hu, G. (2009). The craze for English-medium education in China: Driving forces and looming consequences. *English Today*, 25, 47-54.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enkins, J. (2003). *World Englishes*. London: Routledge.

Kachru, B. (1986). *The alchemy of English: The spread, functions, and models of non-native Englishes*. Oxford: Pergamon Press.

Kang, H. (2012). English-only instructions in Korean universities. *English Today*, 109, 29-34.

Kelly, M. (2014). Recent developments in EU language policy. *European Journal of Language Policy*, 6(1), 119-150.

Kim, Y. (2010). *Effects of English-music integrated learn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hievements and motiv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laassen, R. G., & De Graaff, E. (2001). Facing innovation: Preparing lecturers for English-medium instruction in a non-native context. *Europea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26(3), 281-289.

Lambert, W. E., & Tucker, G. R. (1972). *The bilingual education of children: The St. Lambert experiment*. Rowley, MA: Newbury House.

Lauridsen, K. M. (2009). National language polic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Denmark. *European Journal of Language Policy*, 1(1), 29-38.

Lauridsen, K. M. (2013). *Higher education language policy: Report of the CEL/ELC working group*. Working Group of the European Language Council, 128-138.

Manh, L. D. (2012).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in Asian universities: The case of Vietnam. *Language Education in Asia*, 3(2), 263-267.

Marsh, D. (2002). *CLIL/EMILE - The European dimension: Actions, trends and foresight potential*. Jyväskylä,



Finland: University of Jyväskylä.

Marsh, D., Wolff, D. (Eds.) (2007), *Diverse contexts—Converging goals: CLIL in Europe*, Frankfurt: Peter Lang.

Nunan, D. (2003), The impact of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on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ESOL Quarterly*, 37(4), 589-613.

Oh, K. (2011), *Instructors' and students' perceptions on English-medium instruction: Focusing on th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Korean univers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ark, J. (2012, June), *Upheaval in English education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1st World Congress of Scholars of English Linguistics, Seoul, Korea.

Phillipson, R. (1998),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hillipson, R. (2003), *English-only Europe? Challenging language policy*, London: Routledge.

Pietiläinen, J. (2011), Public opinion on useful languag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Language Policy*, 3(1), 1-14.

Sert, N. (2008), The language of instruction dilemma in the Turkish context, *System*, 36, 156-171.

Sherris, A. (2008), *Integrated content and language instruction*,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Tsuneoyoshi, R. (2005),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in Japan: The dilemmas and possibilities of study abroad programs using English,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4, 65-86.

Vinke, A. A., Snippe, J., & Jochems, W. (1998), English-medium content courses in Non-English higher education: A study of lecturer experiences and teaching behavior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3(3), 283-395.

Yumei, J. (2010), The rol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in china, In F. Maringe & N. Foskett (Ed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oretical, strategic, and management perspectives* (pp. 225-238),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Wikipedia. (2013). *List of countries by English-speaking population*. Retrieved on January 28, 2015, from the World Wide Web: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nglish-speaking_population.

KATE 학회지 『영어교육』의 전망

KATE의
미래

II



이정원*
(충남대학교)

들어가는 말

한국영어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가 1965년에 창단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많은 토론과 의견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KATE를 대표하는 『영어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회의 꽃이 학술지임을 생각할 때 KATE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영어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러한 화두와 가장 많이 연계되어 언급되는 용어가 학술지의 국제화이다.

1965년에 태동한 이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몇 번 그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영어교육』은 한국 영어교육의 발전과 부흥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모습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쉘

* KATE 25대 편집출판 부회장 역임

수 없이 많은 선배 학자들의 땀과 눈물이 뿌려진 토양에서 『영어교육』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해 꽃을 피우기 시작한 『영어교육』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개하는 그 날을 위해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배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영어교육』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실현시켜야 할 『영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장래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제까지의 모습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이를 발판으로 『영어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초석이 될 학술지의 국제화라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이제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먼저 『영어교육』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학술지의 국제화라는 대 명제를 KATE에서 어떻게 풀어가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KATE와 더불어 학술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영어교육』의 발자취

김영태(2006)에 따르면 한국영어교육학회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며, 『영어교육』의 발전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72년 전반기까지의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The 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 ULLA) 시절로, 이 때 학회지는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 보고서(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f University Language Laboratory Association of Korea)』라는 명칭으로 발간되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주제 강연과 협의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으며 연구 논문은 매우 적었고, 1호부터 8호까지 연간 1회씩 발간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72년 후반기부터 1994년 전반기까지의 한국영어교육학회(The Colleg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CETA) 시절로, 9호와 10호 보고서의 표지는 『영어교육: 한국영어교육학회보고서』라고 되어 있었고, 1975년에 간행된 11호부터 『영어교육』 혹은 *English Teach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3호부터 49호까지 매년 두 번(2월과 8월) 발행하게 된다.

세 번째 시기는 1994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영어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시절로, 두 번째 시기의 명칭과 우리말은 같지만 영어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7일자로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에 가입하고 ISSN 1017-7108을 부여받게 된 후, 50권(1995년)부터 연간 4호(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모든 호에서 우리말 논문과 영어 논문을 구분하지 않고 실었지만, 50권 3호(가을호)를 국제호로 발간함으로써 영어 논문만 실는 국제호가 등장했으며, 56호(2001년)부터는 1호와 3호를 국제호로 발간하였고, 68권(2013년)부터는 SCOPUS 등재 준비의 일환으로 2호를 제외한 1호, 3호, 4호를 국제호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은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 최초로 61권(2006년) 3호부터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논문 투고, 심사, 결과 통보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문 관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논문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어교육』의 새로운 도약

1991년에 ISSN을 부여받음으로써 『영어교육』의 국제화 노력이 시작된



이래로 『영어교육』을 Scopus에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이 2013년에 ‘KATE 학술지 해외등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Scopus는 2004년에 네덜란드의 Elsevier 출판사가 만든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 지수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SCI 논문이라고 할 때 Scopus에 등재된 논문도 포함해서 지칭한다. SCI(Science Citation Index)는 미국의 Thomson Scientific사가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인데 비해, Scopus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출판된 영어 논문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자국 언어로 작성된 우수 논문 콘텐츠도 포함하고 있어서, 2007년부터 *Time*지는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 논문을 평가할 때 Scopu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일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논문집이 Scopus에 등재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영어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논문집이 Scopus 등재를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

KATE는 2013년 8월에 KATE 학술지 해외등재위원회를 만들고 『영어교육』을 Scopus에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영문화하였고,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 검색 사이트와 논문 투고 사이트를 영문화하였으며, 학술지에 안내되는 논문 투고 요령 및 논문 양식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다. 또한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논문을 쓴 투고자의 논문 투고 섭외를 위해 힘썼고, 『영어교육』지에 실린 논문의 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며, 편집진의 저명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에서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을 쓴 교수들을 편집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등재 준비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2014년 봄에 68권(2013년) 3호와 4호 그리고 69권(2014년) 1호를 심사본으로 Scopus에 제출하여, 현재 『영어교육』의 Scopus 등재 여부는 심사중에 있다. 『영어교육』의 Scopus 등재가 결정되면 『영어교육』은 우리나라

의 영어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영어교육』 학술지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또 한 가지 일로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해 DOI(Digital Object Identification)를 부여받은 것이었다. 1997년 10월에 IDF(International DOI Foundation) 재단이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되었고, 1998년부터 indexing 사업을 시작했으며,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IDF 산하 기관인 CorssRef에서 DOI를 부여한다. DOI는 온라인 상의 디지털 지적 재산에 부여하는 알파벳-숫자 기호 체계를 말하는데, 학술 논문의 경우도 고유 번호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해당 논문을 언제나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고유 식별 체계이다. 즉, DOI는 영구불변하기 때문에 웹사이트 주소가 바뀌더라도 해당 논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DOI가 없으면 인터넷 상에서 학술지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최근 Scopus에서도 DOI가 없는 학술지에는 DOI 부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에도 DOI 부여 여부가 들어 있을 정도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한국연구재단, 2014). 『영어교육』의 경우 DOI를 2013년에 한국연구재단에 요청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69권(2014) 4호(겨울호) 논문부터 부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어교육』에 실린 논문의 참고문헌 링크를 통해 논문의 국제적 노출 기회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교육』의 과제

학술지를 국제화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해야 할 일



은 많겠지만 현재 고민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먼저 학술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훌륭한 논문을 항상성 있게 편집·출판하기 위한 체계화된 운영 제도를 갖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집 시스템, 편집 위원회 체계, 논문 심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편집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영어교육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외국 학술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몇몇 학술지의 경우, 학술지 논문 편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 부서에 훈련된 편집 요원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논문 투고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논문 작업을 할 때, 논문 체제를 맞추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논문의 질에 좀 더 노력을 쏟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투고된 논문에 대해 훈련된 전문 편집 인력을 활용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완벽한 논문집 출판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존재할 것이므로, KATE는 이러한 여러 국내외 학회의 학술지 운영 체계를 조사·분석해서 KATE에 맞는 편집 운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편집위원회의 체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시한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문 심사는 학회 임원 전체와 필요할 경우 외부 학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역할은 주로 논문 출판 전의 편집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일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편집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편집 체제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적 학술지가 되기 위한 항상성을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에 언급한대로 학회 내에 별도의 전문 편집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KATE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점검하고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논문 심사와 관련된다. 현재 『영어교육』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해당 임기의 임원 전체와 필요할 경우 외부 학자들에게 세부 전공 영역에 따라 요청하고 있는데, 심사자의 연구 영역과 방법, 태도 등이 서로 달라(김진완, 2006) 논문 심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게 되고, 이는 출판되는 논문의 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논문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전반적인 논문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시해보고, 이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보강해가면서 궁극적으로 표준적인 논문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논문 심사 위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논문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논문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투고자의 신뢰를 얻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 연구 진흥과 관련된 것으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인용지수가 높은 학자들의 논문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인용지수가 높은 학자들이 되도록 돕는 일에도 학회와 학술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KATE에서는 일 년간 투고된 논문 중에서 한 편을 선정하여 여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 확대·발전시켜 다양한 방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교육』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영어교육』의 진정한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50주년을 즈음해서 『영어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적어보았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영어교육』이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굳건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체제와 방식은 변화·발전해가더라도 그 정신은 여전히 학자의 깨끗함을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학술지로 남아주기를 기대한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영어교육』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영어교육 역사의 산 증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김영태. (2006). 한국영어교육학회 40년사. *영어교육 61*(특별호), 3~20.
김진완. (2006). 한국 영어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연구 방법, 연구 성향 및 연구 주제. *영어교육, 61*(특별호), 247~260.
한국연구재단. (2014). *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및 DOI 지원 설명회*. 대전: 한국연구재단.

영어교육 3.0시대: 영어교육 전문가의 역할

우리가 과거에 먼 미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오던 모습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스마트 시대는 아직도 혁신이 거듭되고 있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개인컴퓨터가 활성화되던 1990년도, 인터넷이 도입되던 2000년도, 스마트폰이 도입되던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계속되어 왔고 향후 그 변화의 속도는 결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어교육도 전달식 교육에 집중되던 1.0시대, 학습자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2.0시대를 거쳐, 이제는 다차원적인 협력으로 논의하는 3.0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 늘 하던 것, 알던 것에 고여 있기보다는 우리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고,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KATE 24대 총무이사 역임



전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내용적 측면의 성찰

우리의 영어교육은 의사소통을 교육하고 있을까?

영어교육이 늘 지향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논의와 정의가 계속되어 왔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론과 현실의 격차가 존재, 수년간 영어를 학습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의사소통이 왜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영어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 제2언어로 영어를 어떻게 학습 및 교육을 해야 하느냐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해왔다. 우리가 영어를 수년간 배우고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필요한 영어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에 대한 감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적으로는 능력에 문제가 없는 우리말 의사소통의 경우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관찰과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말을 언어적으로 능숙하게 잘한다 해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감이 없으면 친한 친구 간에도,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부부 간에도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적 능숙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 하에서의 효과적인 소통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영어교육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을까?

우리말로 이루어진 아래 의사소통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자.

(A는 30명 단체를 위해 햄버거를 구입하며 포장을 부탁하였다. 30개의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고 경비 아저씨께 드릴 한 개를 추가주문하며 한 개는 따로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후, 포장된 햄버거를 받는 상황에서)

A: 햄버거 한 개 따로 포장해달라고 부탁한 건 어디 있지요?
 점원: 제가 쇼핑백에 넣었어요.
 A: (10~12개의 쇼핑백을 동시에 바라보며...) 어느 백이요?
 점원: 거지요... 쇼핑백이요...
 A: (10여 개의 봉투를 바라보며...) 어느 쇼핑백...?
 점원: 거지요... 햄버거 봉투요...
 A: 다 봉투이고... 봉투가 많은데... 한 개가 들은 햄버거 봉투가 어느 건지 어떻게 알지요?
 점원: 거지요... 손잡이 달린 쇼핑백에 넣었어요.
 A: (급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보며...) 모든 봉투에 다 손잡이가 달렸어요... 직접 좀 찾아주세요?

필자가 직접 경험한 위의 사례에서 의사소통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가 햄버거 한 개가 들은 봉투를 찾고 있으나 점원은 A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한 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명이 같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으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대화를 영어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점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햄버거를 특정 한 봉투에 넣었으니 특정 봉투를 기억하지만, 한꺼번에 비슷하게 생긴 봉투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봉투가 어느 봉투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런 입장을 점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지요,’ ‘봉투요,’ ‘손잡이 달린 쇼핑백이요’라고 자기 입장에서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에 평상시의 고찰, 훈련이 부족하여 상황에서 요구되는 응답이 무엇인지 감이 없어서일 것이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 관점에서 요구되는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말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언어를 바꾸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의사소통은 결국 상대방과의 관점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위의 예시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교육할 때 상대방 중심의 관점,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맥락 속에서 영어라는 언어와 함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교육해야 한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발음이 좋고, 필요한 어휘와 구문 능력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0시대에는 어떠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될까?

간단한(Simple) 영어 커뮤니케이션

향후 우리는 어떠한 맥락에서 영어를 하게 되는가? 인터넷 보급 이래 영어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서로 모국어가 다른 화자 간에 의사소통이 영어로 일어나면서, 영어는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의 영어보다는 다소 단순하고 쉬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과거 링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은 명문의 연설보다 스티브 잡스와 같이 쉽고 명확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모국어 화자 간에, 특히 비영어권 화자 간에 영어 의사소통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필요하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이제 해외의 유명 기업의 CEO가 쉽게 영어로 연설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 시대이다. 수려한 표현과 긴 명문의 영어도 가끔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영어를 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Clear) 영어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종종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원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1) 대화의 상대방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2)내가 사용한 어휘를 상대방이 유사한 철자의 어휘나 유사한 발음의 다른 어휘와 혼동하거나, 3)내가 사용한 지칭어를 상대방은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4)복합적인 문장의 해석이 미숙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져 실제로 다른 사람과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영어의 어휘, 발음, 구문, 상황을 지도할 때, 대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영어라는 언어 학습과 함께 이루어져 명확하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 중심의(Audience-Centered) 영어 커뮤니케이션

우리말이나 영어로나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종종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전 햄버거 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요구되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영어라는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 달라서 종종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대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들마다 특정 시점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데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맥락과 정보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효율성 측면의 성찰

우리의 영어교육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글로벌 시대... 원하는 원치 않던 인터넷부터 일상에 이르기까지 영어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영어유치원, 놀이방 영어, 학습지 영어 등으로 일찍 시작되는 어린이 영어부터,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영어, 그리고 대학영어, 각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성인영어를 이르기까지 영어에 대한 투자는 길다. 이제 길게 이루어지는 영어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가 효율성을 점검할 때이다. 즐겁고 행복하게 영어를 경험하게 하는 데 집중하는 초등학교의 영어는 과연 중학교에서의 영어를 준비해 주는 것일까? 중학교 입학 순간부터 영어는 주요 학습과목의 하나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해 보는 것보다 학교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시험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목표하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점검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시험을 위한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일까? 만약 중학교의 영어시험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살다 온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좋은 학생은 점수를 잘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열 지구에서는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이 학교 내신 영어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고등학교 영어는 어떠한가? 중학교 영어보다도 한발 더 입시에 가까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내신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때로는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도 학교의 내신 영어 평가 문제에 대한 감과 시간적 투자가 없으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내신영어 1등급을 받기 어렵다. 학생의 입장에선 영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학습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교사는 학원, 학습지, 참고서에 없는 변별력을 발휘하는 기적의 시험문

제를 중간, 기말마다 만들어야 하기에 학교의 영어평가 문제는 점점 이상한 모습이 되어간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는 학교의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낄까?

초·중·고를 벗어나도 영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학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많은 기회가 영어능력으로 인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어기회의 격차보다 더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영어능력의 격차이다. 교환학생을 가려 해도, 인턴쉽·직장을 구하려 해도, 승진을 하려해도 또는 자신감 확보에도 영어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영어학습에 긴 투자를 하고도 막상 필요한 영어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학습자가 다수 존재한다. 초·중·고에서는 학교영어와 학원영어로 영어시험을 준비하며 얻은 영어능력과 대학생과 성인이 되어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어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능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영어에 투자하고도 정작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어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길을 찾고자 할 때에는, 먼저 갈 곳을 정하고 가장 빨리 가장 쉽게 목표하는 곳을 갈 방법을 찾는다. 우리의 교육이 그러한 효율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많은 경비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그 과정을 그대로 지켜보는 전문가는 없다.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영어교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학습하는 목적과 목표는 같아야 한다. 초·중·고, 대학, 대학 이후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어라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단일 목표에 충실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별력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영어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 내내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통일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켜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

다. 초·중·고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육이 같은 목표로 연계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교재, 평가가 모두 공통의 목표로 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영어를 필요로 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학습자는 모두가 크게 다르지 않게 무작정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는 언어 입력이 무한히 늘어나면 능력이 융합되며 궁극적으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된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환경에서 제한된 시간에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려면 좀 더 경제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내용의 영어를 필요한 수준만큼 일단 먼저 갖추고 이후 점차로 다양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추가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예를 들어 일상적 영어 회화가 필요한 사람은 영어읽기를 통해 학습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어 대화문을 먼저 많이 접하고 필요한 배경적인 지식과 필요한 영어표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학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반면, 읽기와 쓰기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듣기와 말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지문을 수준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읽는 학습부터 하는 것이 투자 시간 대비 효과가 클 것이다. 성인학습자라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영어부터 영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교육강국인 한국에서 지금까지 영어교육은 고객확보를 할 이유가 없었다. 누구나 영어를 배우므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모두 주어진 과정의 영어교육의 긴 시간 동안 스스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영어학습이 필요한 의사소통 중심이 된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필요한 영어를 찾는 수요가 늘게 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글로벌화로 영어노출이 빈

번해지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기본적인 영어학습 수요는 오히려 줄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영어교육을 투자대비 효율적으로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영어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언급하는 것은 왜 한국인 전국민이 영어를 배워야 하느냐는 것이다.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수준의 영어가 필요한 것일까? 아마도 미래에는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휴대폰의 앱으로도 제공되며 영어교육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될 것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학습자의 수요를 예측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 분야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을 것이다. 9차 개정된 아래 산업분류(통계청, 2008)를 살펴보면, 영어가 어떠한 산업분야에서 활용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글로벌 사회 도래 이전에는 각 산업분야에서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적었으나, 이제 좋은 삶든 국내에서만 산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해외로 진출하는 산업의 경우 영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해외와의 협력 정도에 따라 영어활용이 달라지게 된다. 국제 및 외국기관과의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영어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시장확보를 위해 영어 커뮤니케이션의 수요가 더욱 늘 것이다. 산업별로 발생하는 영어 수요에 대한 조사와 예측이 필요하다.

업종별 분류(통계청, 200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6. 도매 및 소매업
7. 운수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금융 및 보험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천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 교육 서비스업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0.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별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지만, 각 산업 내에서의 직종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각 직종별로 어떠한 수준의 영어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 것일까? 한국노동패널(2007)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직종의 영어활용도, 영어능력, 영어에 대한 투자를 분석한 김희삼(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직종에 따라 영어활용 정도, 영어능력, 해외연수 등 영어에 대한 투자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종별 분류(노동패널조사, 2007)
1. 관리직
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3. 금융·보험 관련직
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6. 보건·의료 관련직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 문학·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24. 군인

화학 관련직, 기계 관련직, 전기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순서로 실제로는 영어를 많이 활용하는데 영어능력이나 영어에 대한 투자는 타직종에 비해 높지 않다. 재료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및 보건·의료 관련직도 영어활

용도는 높는데 영어능력이나 영어에 대한 투자는 낮다. 이와는 반대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금융·보험 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건설 관련직 등은 영어능력이 높고 영어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업무상 영어활용도는 낮다. 이렇게 직종에 따라 영어능력의 활용정도가 다르므로, 자신이 미래 진입하는 직종에 따라 어떠한 영어가 어느 수준으로 요구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직종별로 가장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 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에 맞는 영어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KATE의 역할은?

교육적 측면

영어교육 분야에서 소통, 문화의 이해, 글로벌 상황에서의 영어의 변화 등은 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교육은 여전히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라는 언어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문화간 소통의 다양한 양상이 연구되고 있고, 세계영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영어 사용 상황과 현지화된 영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글로벌 대중을 위한 한국인의 영어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인접 분야의 진정한 융합이 요구된다. 인접 이론과 영어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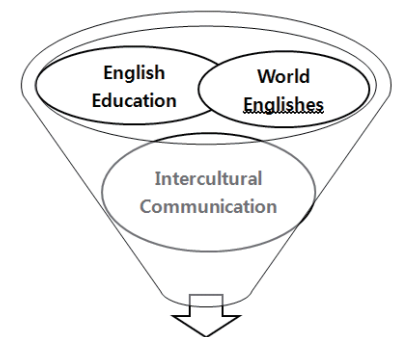
한국인이 빈번하게 접하는 간단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우선적 교육

우리 한국 학습자가 가장 빈번히 접촉하게 되는 영어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간단한 영어 표현을 우선적으로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흔히 사용되고 있는 외국 출판사의 학습교재들이 주로 영어권에서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국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학습자들이 영어를 일반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이 접하는 상황 속에서 응용을 하게 하기보다는 자주 노출되는 상황을 학습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학습한 내용의 영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영어권에서의 의사소통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영어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명확한(Clear) 영어 커뮤니케이션 교육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학습이 이루어져 실제로 다른 사람과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영어의 어휘, 발음, 구문, 상황을 지도할 때, 대화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의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대화상대방에게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맥락을 설명 2)유사한 철자의 어휘, 유사한 발음의 어휘를 피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어휘와 발음을 선택 3) 애매한 지칭어나 대명사 사용을 피하고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 4)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복잡한 문장보다는 간단명료한 문장을 사용하도록 효과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nglish for Global Audience

글로벌 청중을 위한 영어교육(Jeon, 2013)



상대방 중심의(Audience-Centered) 영어커뮤니케이션 교육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말로도 뜻을 알아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내용을 알 수 있다. “청소 좀 알아서 해줘”로 내가 의도하는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보다는 “책상 위 먼지 없애주고, 바닥 쓸어주고, 창틀 닦는 청소 부탁해”라고 하는 쪽이 상대방이 이해하기에는 더 쉽다. 내 관점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맥락의존도가 높은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은 저맥락 문화에서 온 대화상대방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 고맥락적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 커뮤니케이션과 저맥락적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난해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 상대방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연구측면: 벽을 허무는 융합 노력

다차원적이고 창의적인 융합이 요구되는 사회를 직면하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융합이 가능한 지 고민해야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역별로 이루어지는 사고의 벽을 넘어 벽이 없는 분야와 분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학문 분야마다 이미 진행된 연구의 주제가 소진되고 있으며 유사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조금만 벽을 트면, 다른 분야에서 내 것을 살펴보거나 내 분야에서 다른 것을 살펴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의 조합들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말,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증진된다면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산업현장과 융합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눈을 돌린다면 보다 산업현장별, 직종별로 수용에 맞는 영어교육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어간판, 영어지시문, 설명문 등이 보다 더 의사소통이 잘되는 형태도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학자들의 끊임없는 관찰과 제안이 필요하다. 사회전반에 통용되는 한국식 영어의 사용에 대한 연구, 산업현장과 직종별로 필요한 영어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는 영어교육 현장을 보다 맞춤형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고, 각 산업에서 활용되는 영어교육을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맞추어준다면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로 산업 자체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서비스 측면

학회의 홈페이지는 한국 영어교육 나아가 아시아 영어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한다. 기업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플랫폼으로 연결하듯이 KATE도 전문가와 전문가를 요구에 따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학회의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는 고여 있는 물과도 같이 참여자의 feed에 의한 능동적인 역할보다는 이따금씩 업데이트하여 먼피히는 정도의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다. 학회가 공유하는 정보의 기반을 확대하여 영어교육 분야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수요를 전문가가 볼 수 있어 지속적으로 사고를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원하던 원치 않든 스마트폰으로 업무의 방식이 바뀌었듯이 능동적인 플랫폼 역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가가 다양한 수요를 직면하고 도전받으며 사고의 혁신을 이루어가야 한다.

맺는말

본고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영어교육을 내용적 측면, 효율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당면하는 미래를 가늠해 보고, 미래 KATE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

았다. 학술원고가 아닌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쓰라는데... 익숙한 형식이 아니라... 틀을 벗어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껴 보았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것, 새로운 영역으로 걸어가는 것은 익숙함을 떠나는 두려움을 주는 듯하다. 두려움을 겁내지 않고 미래로 걸어가는 용감한 탐색기가 향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소 현재가 요구하는 틀을 벗어나더라도 자유로운 사고와 융합으로 영어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한다. 향후 영역과 영역 간, 학문과 학문 간, 학문과 산업 간, 연구자와 연구자 간의 보다 다차원적인 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KATE가 이러한 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KATE의 역할에 대한 소고 (小考)

들어가는 말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견인해 온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학회로서 이 특별호에서 보듯이 영어교육의 이론적, 연구적, 그리고 교육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런 유구하고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학회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50년을 위해 필자는 그동안 학회 활동에 참여하며 느껴왔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위해 앞으로 개선하고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을 대외적인 면, 관련 학회 간 관계 형성 면, 그리고 교수적인 면에서 각각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대외적 리더십의 강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는 교육 면에서 탈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져 영어교육과정이나 방법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



성기원*
(경희대학교)

어 왔다. 그 중에서 몇 개의 중요한 예를 들자면,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의 실현,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영어로 수업을 하는 TEE정책, 원어민의 공급 정책, 국가영어능력시험의 개발노력, 그리고 최근의 영어교육에서의 절대평가제도 도입 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 또는 반향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영어교육에 관련된 교육자들은 각 학회의 대표 또는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입장을 학회 차원에서 제시하고 전문적 학술단체로서 책임있고 올바른 의견을 항상 제시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중단된 국가영어능력시험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가영어능력시험은 처음에 의도한 진단 또는 자격 검정의 목적이 많이 변질되어 사교육 억제 수단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과목 대체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일부 정치인이나 정부관련 기관의 논리가 만연하였다. 그 결과 시험 개발 방법이나 실시 시기 등에서 정부당국자, 주관기관, 교육자 사이에서 많은 상반된 의견이 난무했고 또한 여전히 학부모 및 학생들도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영어교육학회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통한 교육적 여론 형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시기적으로 늦었거나 정부 또는 담당기관의 논리 및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금의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절대평가 도입문제도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특히 이들이 속한 학회가 교육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기 보다는 정부기관에서 여는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정해진 결론을 추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학습자를 위한 평가가 특정 시험방식의 선택의 문제로 축소 및 왜곡되어 절대평가가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논리는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많은 의문을 제기해야 할 문제임에도 주요 언론 등에서 영어교육관련 학

회의 입장은 잘 찾아 볼 수 없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의 오류는 영어교육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책임인 평가의 목적이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영어가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한 교과목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 평가 방식을 정하는 문제는 교육목적 및 내용 그리고 방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한 그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함의를 갖는 교과목으로서 다양한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영어교육 현장에는 평가 외에 다른 해결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국가영어능력시험이나 절대평가 도입 등의 정책의 추진은 표준화된 객관식 시험이 여전히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의 유지일 뿐이므로 우리 학회는 이런 당면 문제에 당연히 올바른 교육적 입장을 천명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의 영어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적대적 관계 설정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일부 집단의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왜곡된 교육정책 및 담론에 많은 교육자 및 학부모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계층이나 지역에 일어나는 지나친 사교육 현상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믿고 일부 정치가, 행정가, 학부모, 심지어는 교사들까지 공교육이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자녀들을 사교육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을 당연시 하게 되고 학교는 그냥 졸업 위한 요식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지나친 비정상적 논리에 근거한 이런 대결 구도속에 실제로 사교육 억제보다는 새로운 시험방식에 불안해 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의 선진화에 대한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사범대 축소나 임용고사 선발 인원 제한을 하는 등 비교육적인 정책이나 학교현장의 영어교육에 대한 왜곡된 언론의 조명에 대



해서도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당사자인 교육대나 사범대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몇 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현재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급 당 학생이 30여명 이상으로 여전히 과다하고, 또한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 보조교사의 충원 등이 필요한데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수·학습에 관련된 일 이외의 과다한 행정에 소비하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몇 사례에서 보듯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이상으로 다른 교육의 제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교육적, 정치적인 여러 현상과 여론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정부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각 학회에서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활동 및 기여를 보장하되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영어교육 정책을 비롯하여 앞으로 계속 대두될 영어교육관련 문제들에 대한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원 간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보다 폭넓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 간의 소통을 더욱 더 강화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필요할 경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주요 문제가 대두될 때 우리 학회가 앞장서서 바람직한 영어교육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적인 기구 등을 만들고 앞으로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회 간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리더십

1990년대 이후 영어교육 관련 학회가 구성되어 수적으로 많이 늘고 심지어는 문학 또는 어학 관련 학회에서도 영어교육 관련 세션이나 분과를 많이 열어 그동안 본의 아니게 홀대를 받았던 영어교육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위해 많은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바친 원로 교육자 및 그동안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회원이 이룬 결실이다. 하지만 영어교육이 이렇게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학회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나은 학회 및 분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영어교육 관련 학회의 중복성의 문제이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학회는 그 나름대로 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발행 및 워크숍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회는 그 내용이나 활동, 그리고 조직과 인적 구성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고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즉 너무 지나치게 비슷한 내용과 형태의 학술 내용이나 국제학술대회라는 명목 하에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름만 있는 외국학자의 중복 초청 등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각 학회의 학문적, 교육적 전문화보다는 일부의 인원만이 참여하고 이들도 학문적인 면에서보다는 개인적으로 인맥이나 논문 출판의 필요성 등 때문에 마지못해 참여하거나 일상적인 잡다한 학회 업무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기관의 잘못된 학술 정책으로 인해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바에도 기인하지만 각 학회가 본연의 목적인 학술연구 및 회원 간의 교류를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 및 연구자로 거듭나는 노력에 좀 더 매진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외적 공동 대응의 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전의 학술진흥재단이나 현재의 연구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학회 및 학술지에 대한 양산 및



평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각 학회는 정부의 담당기관이나 부서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한 때 학문별 학술지 수를 줄이기 위한 통폐합 또는 지원 폐지 등의 문제로 각 학회는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학회별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구심점이 있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좀 더 앞장을 서야 한다. 즉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제반 학회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된 정책이나 학술적·연구적 부분 등에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우리 학회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각 학회는 자신만을 위한 편의주의 또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 과연 학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전문화 및 특성화를 통해 영어교육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의 각 학회의 지나치게 중복적이고 특성화되지 않은 활동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필자는 각 영어교육 관련 학회를 연합하는 단체 구성을 위해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2013년에 한국영어교육학술단체총연합회가 11개의 학회의 참여로 설립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는 학회가 많고 매년 각 학회장이 바뀌고 총연합회의 구성원 및 지도부도 수시로 바뀌어 활동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오래되고 역량있는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 학회 활동을 통한 연구 및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중심이 되는 영어교육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연합회의 실제적인 구성 및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학문 분야와 견주

어 연구적·교수적 수월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 주제별 대규모 공동 학술대회를 년 1회 개최하고 각 학회가 학술대회 기간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발표를 주관하는 보다 협력적이고 다양화된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ERA나 TESOL, 또는 NCTE 등의 대규모 학회처럼 각 학회의 전체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큰 주제를 정해 며칠 간 학술대회를 하면서 또한 각 개별 학회의 전문성을 반영한 세션 등을 특화하여 학문적, 연구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도를 통해 특정한 시기에 몰려 비슷한 내용으로 개최되는 각 학회의 소모적 학술대회 행사, 내용의 중복이라는 폐단을 개선하고 학술적 활동 및 내용 면에서 각 학회는 전문 분야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 및 학습자에게 지금 보다 수준 높고 내용 있는 학술 활동 및 각 학회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전국적 행사를 통한 회원 간의 교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협력을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학회 간 교류가 실제로 활성화되고 또한 앞에서 기술한 대외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타 학문과 비교하여 그 위상 제고는 물론 앞으로 대두되는 주요 교육 문제 및 현안에 대한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의견을 공표하고 많은 학문적, 정책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쉽

한국영어교육학회는 그동안 교육자의 연구역량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

요한 전문성 강화 및 회원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지난 수 십여 년간 영어교사는 영어를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인 언어적 요소인 발음, 단어나 숙어, 문장 또는 지문 해석, 기본적인 회화만을 가르쳐도 영어교사로서 안정된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사회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적 변화의 흐름에서 보듯이 영어교사는 목표 언어를 수업에서 잘 구사하고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및 첨단 기술의 변화를 읽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역량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하지만 필자가 교사연수 등이나 강연, 수업 등에서 이런 언급을 하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은 일리는 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영어를 통해 학습자의 인성 및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계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욱 더 심각한 표정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이에 필자는 종종 우리나라 중등영어교육 목표가 무엇인가 물으면 많은 교사나 학습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세계문화의 이해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실제로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중등영어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영어로 유창하게 소위 원어민이나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목표라면 주당 몇 시간하는 수업으로 정말 불가능하다. 중등영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계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문화적인 목표는 우리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세계시민으로의 자질을 갖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영어교사는 최신 교육과정이나 그 이전의 교육과정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거나 이런 거시적 목표는 등한시 한 채 교과서 또는 문제집을 바탕으로 하는 진도 맞추기, 시험대비 수업, 부분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관련 주입식 기능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

거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단순 언어지식과 시험점수 위주의 수업을 계속하는 행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즉 교사교육 담당자 그리고 모든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거시적 목표와 현재의 미시적 목표를 잘 연계하여 앞에서 언급한 인성교육,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다문화 이해능력 계발은 영어가 아닌 어떤 과목을 가르쳐도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어는 마치 단순 언어기능만을 가르치는 분야이고 영어교사는 다른 직업인과 다를 바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해소하고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진정한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우리 영어교육의 거시적, 미시적 목표와 목적을 확실하게 설정하는데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한 소통 및 교육모형 등의 제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마 세계에서 모든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민족 중의 하나가 우리이며 우리 예비교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매우 성실히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로서 일을 시작하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간 수업 및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다가 대다수는 학교의 업무나 개인의 일에 치우쳐 자신의 교수역량 개발을 등한시 한다. 필자가 그동안 주관했던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직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행정업무나 단순 학사 업무에 치여 수업이나 교재 연구 등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비일 비재하다. 특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수·학습 역량 계발을 위한 연수나 학술 활동 참여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으로 모든 부모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20대에 임용이 되었거나 고용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도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매년 학생이 바뀌어도 같은 내용 및 방식으로 30여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교



사 본인의 아들과 딸을 맡기겠는가? 당연히 안 맡길 것이다. 따라서 한국영어교육학회는 많은 영어교육자가 직면한 이런 현실을 절실히 인식하여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점수를 위한 연수나 형식적인 연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현장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워크숍이나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현재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는 교과서나 일부 해외 저명 출판사에서 나온 상업적 교재가 국가교육과정을 대신하고 있다. 즉 많은 영어교육자는 국가교육과정보다는 특정 학습교재 중심의 수업에 치우쳐 그 내용만을 따라가 르치는 경향이 많아 교재개발 및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연수나 모임 등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현재 교사교육의 내용을 보면 교재 개발 및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 문화지도, 평가 등에 대한 교과목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이며 구체적인 내용 및 실행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평가의 경우, 현재 수학능력시험이나 학교의 각종 시험이 평가의 전부인 것처럼 학습현장을 지배하며, 교육자가 아닌 외부기관이 특정 시험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단기적인 결과에 치중한 우리 사회의 폐해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담당한 학습자에 대한 평가의 권리를 각 교사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므로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계속 양성한다면 이는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학습자 개개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들의 장, 단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적용할 줄 아는 교사보다 바람직한 평가자가 있을 수 있는가? 따라서 현재의 공·사기관에서 주도하는 시험위주의 정책이나 관행은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교사교육 담당자의 책임이며, 또한 한국영어교육학회도 현재의 시험 점수만을 위한 교수·학습의 한계점과 지난 수 십 년간 되풀이 되어 온 수학능력시험 또는 제반, 중등·대학입시, 그리고 학력평가, 성취도 평가

등의 이름으로 ‘시험 잘 보는 소수’를 고르기 위한 관행의 개선 및 철폐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영어교육학회를 비롯하여 많은 학회의 일이 지나치게 대학 교수 위주로 진행되고, 학회 운영 면에서 일부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은 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아직도 대학 교수로만 이사진이 운영되며 설령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학회라도 이는 명목상이거나 현장 실무중심의 분야에 관련된 특정 교사 집단만의 모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영어교육학회는 각 일선 교사 및 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과연 일선 교사와 대학(원)생이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회가 어떤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가 반문해 보자. 현재의 학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지 반추해 보자. 영어교육 관련 전문행정가, 교수, 예비교사, 현직교사, 대학(원)생의 현재의 역량은 다 각기 다를 수 있고, 다른 것도 사실이나 이런 것이 미래시대의 영어교육을 위한 장애라기보다는 서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교수적·연구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형성에 필요한 근본적인 요소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영어교육학회는 이 여러 집단이 서로 함께하는 연구모임, 실무모임 등을 활성화 하는데 앞장을 서고 서로의 다름을 중재하여 보다 발전적인 연구적, 교수적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한국영어교육학회가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우리나라

의 대표 학회로서 이루어 놓은 결과에 대해 필자는 매우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좀 더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적, 교육적 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역할을 대외적, 학회 간, 그리고 교육자 개인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기술을 했다. 이런 제언은 비록 필자의 짧은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앞으로 꼭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제시한 것이지만 여러 집단 및 구성원 간의 합의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 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큰 변화도 누군가 시작을 하고 작은 노력을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도 자신부터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도 각 학회의 각 구성원인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어려운 법이다. 교육은 한 개인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학회의 질도 내가 먼저 변화의 주체가 될 때 비록 좀 느리더라도 결국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면 좋겠다.

회원 추억담 '나의 KATE 이야기'

KATE 학회 활동을 했던 회원님들의
소소한 추억담들을 사진과 함께 모은
사진 블로그입니다.
학술대회 준비, 학술발표 등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